

북스

Books

'인간 김대중'이 민족에게 보낸 간절한 고백

옥중서신1·2

김대중·이희호 지음

“세속적으로 볼 때 나는 좋은 남편도 못되어, 좋은 아버지도 못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친척들에게 얼마나 많은 누를 끼쳤습니까? 또한 가을 아픈 것은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고난을 당한 사실인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듯합니다.”-1980년 사형선고 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김대중의 그의 몸을 가두었지만 자유를 향한 그의 의지는 단 한 순간도 억압하지 못했다. '옥중서신1·2'는 지난 1984년 발간된 '김대중 옥중서신'의 증보판이다. 김 전 대통령이 이희호 여사 등과 주고받았던 미공개 서신을 담았다.

책에 실린 편지들은 단순한 옥중서신을 뛰어넘어 김 전 대통령의 사상과 가치관이 집약된 하나의 연구 논문이며, 철학서이다.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과 신앙에 대한 강한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옥중서신1'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편지 8통과 78년 건강 악화로 서울대병원으로 이감되었을 때 쓴 메모 등이 실렸다.

특히 감시원 물레 이 여사에게 전달했던 메모로 놀려 쓴 메모 수십 장이 새로 실려, 거대한 독재 앞

에서 숨죽여야 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메모로 쓴 메모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내용을 관독해 책에 게재한 것이다. 또 이 여사가 보낸 편지를 묶은 '옥중서신2'의 대부분도 그간 미공개됐던 것들이다. 책의 부제는 '김대중이 이희호에게(이희호가 김대중에게), 편지가 새긴 사랑, 자유, 민주주의'이지만 모든 편지의 내용은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단졌던 '인간 김대중'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는 간절한 고백이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진주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봉합서.

에서 숨죽여야 했던 당시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메모로 쓴 메모는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실에서 내용을 관독해 책에 게재한 것이다.

또 이 여사가 보낸 편지를 묶은 '옥중서신2'의 대부분도 그간 미공개됐던 것들이다.

책의 부제는 '김대중이 이희호에게(이희호가 김대중에게), 편지가 새긴 사랑, 자유, 민주주의'이지만 모든 편지의 내용은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단졌던 '인간 김대중'이 우리 민족에게 보내는 간절한 고백이다.

'옥중서신1'의 '장-필박 그리고 자유'에는 김 전 대통령의 신앙과 종교관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카사노바의 첫, 하나님의 첫' '섬겨온 예수' 등 성경 구절에 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또 편지 곳곳에는 문학, 철학, 경제, 사회과학, 예술을 두루 섭렵한 김 전 대통령의 지적 여정과 깊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2장-못으로 놀려 쓴 메모'에는 70년대 후반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투쟁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민주주의 운동의 구체적 투쟁 방법·지침을 기록한 것이다.

80년 사형 선고 뒤 국제엠네스터의 구명을 위한 긴급모금도, 고(故) 김수환 추기경이 이 여사에게 보낸 편지 사도도 처음 책에 실렸다.

《시대의 창·1권 2만2천원·2권 2만원》 /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중국 거대한 기차. 중국 티베트 고원지대에 개통된 청장(青藏)철도의 이면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는 철도가 들어섰으나 티베트인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철도 주변 곳곳에서 일어난 재개발 때문에 주민들이 갈 곳을 잃고 한족에게 상권을 빼앗겼다고 지적한다. 《에버리치출판스·1만6천원》

▲가적의 필름클립=고전영화부터 현대 걸작까지를 소개한 영화 에세이집이다. 캐나다 소설가이자 영화평론가인 데이비드 길모어의 영화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가장 좋은 교재라고 말하면서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에서부터 쿠엔틴 타란티노의 '펄프픽션'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소개한다. 《슬·1만2천원》

▲쓰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조혜련의 미래일기=환상 새로운 목표를 찾아 도전하는 에너지자이저, 개그맨 조혜련이 '꿈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몸소 실천하며 체득한 꿈을 이루어내는 비결을 '미래일기'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소개한다. 《위즈덤하우스·1만2천원》

▲아무도 편지하지 않는다=2004년 중앙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광주 출신 장은진씨의 장편소설로 제14회 문학동네작가상 수상작이다. 소설은 논문 개와 모델을 전전하는 남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고통한 삶에 대한 묘한 아픔과 추억 속 한 편의 슬픔을 따듯하고 정감 어린 작가만의 문체로 어루만지고 있다. 주제를 작품 속에 맥락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문학동네·1만원》

▲불안한 변영=1997년 IMF 사태 직후 한국의 거의 모든 진보세력이 IMF 개혁을 지지할 때에 반기를 들었던 인물 인찬근 이찬근 교수가 글로벌 자본주의와 금융공황으로 인해 태어난 불안한 미래의 정치경제학을 전망했다. 책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지속적인 경제발전 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현실적 맥락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부키·1만4천원》

▲워낭소리=관객 300만명을 동원하며 한국 독립영화사에 이정표를 새긴 '워낭소리'의 제작 뒷얘기를 묶었다. 이창렬 감독, 고성재 PD 등 저자들은 영화를 준비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비롯해 제작자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워낭 돌풍'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소개했다. 이창렬 감독은 "정말 어렵게 만든 작품이다. 무척이나 '짠' 제작자를 만나 눈물 섞여가며 촬영했다"고 말한다. 《링거스·9천800원》

▲올림포스=효고상 등을 받은 미국 과학소설(SF)의 거장 잭 시먼스의 신작소설. 전자 '일리움'에 이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 고전문학과 우주과학을 결합했다. 스타워즈를 방불케하는 40세기 로봇, 우주선들의 활약, 선과의 대립 등 태양계 전역을 무대로 그리스 신화의 세계가 펼쳐진다. 《베기북스·2만8천원》

우리 토박이 말 3천개

뜻풀이·쓰임새 소개

1998년 토박이 말 사전인 '한겨레 말말이'를 시작으로 우리 말에 관한 책을 꾸준히 내고 있는 장승욱씨가 수 천년 겨례의 역사를 이어온 뜻깊은 우리말들을 모아, 해설한 '우리말은 재미있다'를 펴냈다.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알아두어야 할, 실생활의 여러 방면에 되새겨 ' 쓸모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토박이 말 3천여개를 세세한 뜻풀이와 그 쓰임새를 설명한다.

또 책은 각종 문학작품 속에서 가려뽑은 다양한 예문을 실례로 수록하고 있으며 200여 개 단어의 사전적 정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의 뜻풀이도 덤으로 소개했다.

《하늘연못·1만5천원》 / 김대중기자bigkim@kwangju.co.kr

런던을 속삭여 줄게

정혜윤 지음



정혜윤(CBS PD)이 '여행기'를 냈다고 했을 때 그녀의 책을 읽었던 독자들은 생각했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여행기'의 모습을 하고 있지한 여타의 여행기와는 다른 독특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거라고.

독특한 독서기 '침대와 숲'과 책을 매개로 한 인터뷰집 '그들은 한글의 책에서 시작됐다'를 통해 중형 부진 책읽기를 보여줬던 정씨가 세번째 책을 냈다. '여행기'이야, 이야기 책이야?' 헛갈리는 책을 쓰고 싶었다는 그녀가 첫번째 방문지로 선택한 곳은 영국 런던.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세상으

런던 고적지 이야기 공간으로 재탄생

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가 바로 런던의 지하철 이라는 사실에 매혹되시다.

새 책 '엔젠타 떠날 너에게 런던을 속삭여 줄게'는 여행기이면서 동시에 인물기이고, 독서기다. 그녀가 찾아가 곳은 빅토리아 앤드 앨버트 박물관, 웨스트민스터 사원, 세인트 폴 성당, 런던탑, 자연사박물관, 그리고치 천문대 등이다. 런던을 찾았던 사람이라면 한번쯤 방문했을 곳이고, 런던을 꿈꾸는 이들이 방문 목록에 챙겨놓았을 곳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히 낸다. 책에 여행 정보 같은 것도 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은, 무엇보다 과거의 인물과 사건들이 살아 돌아온다.

물론, 그 이야기들은 다양한 독서관련을 자랑하는 그녀가 읽고 묵혀둔 '책'에서 튀어 나온다. 레이먼드

카버와 아가사 크리스티, 찰스 디킨슨의 작품들 '오만과 편견'과 '낭만과 모험의 고고학 여행' 등 헤아릴 수 없다.

이 책을 쓰면서 어린 시절 읽은 교과서와 동화부터 수많은 전문 서적까지 많은 책들의 도움을 받았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책 말미에 소개된 150여권의 책은 그녀가 얼마나 지독한 '독서가'인지 단번에 보여준다.

희려한 사진과 편집으로 구성된 요즘의 여행기에 달리 컬러 사진 한 장 없는 투박한 편집은 자신감으로 도도 읽힌다.

장도는 '공저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 '시사저기'를 거쳐 현재 '신지혜의 영화음악'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 《푸른술·1만2천원》 /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부동산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광주 전지역 빌딩 전문. 광주 전지역, 상업지개발 상담 전문. (매매 및 개발이 어려운 토지) ※ 상무지구 빌딩매매 ※ -대지 : 150평 - 건물 : 884평 - 매도가 : 49억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